(2015. 3. 31(화) ~ 4. 10(금) 11일간 / 스페인·포르투갈)

행정자치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연수개요 ····· 1

Ⅱ. 연수국 현황 ····· 4

1 스 페 인 ····· 4

2 포르투갈 ····· 16

Ⅲ. 주요 연수결과 및 시사점 ····· 28

1 선진국 재정운용 벤치마킹 ····· 28

2 선진국 소방서 운용상황 벤치마킹 ····· 33

3 선진국 소방안전시설 비교분석 ····· 41

Ⅳ. 기타 연수결과 및 시사점 ····· 51

1 선진국 관광 홍보정책 벤치마킹 및 비교분석 ····· 51

Ⅴ. 연수성과 ····· 54

Ⅵ. 연수후기 ····· 55

1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 ····· 55

2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박미권 주무관 ···· 59

3 전북도청 소방행정과 강병철 주무관 ····· 62

4 전북도청 예산과 박혁 주무관 ····· 65

Ⅰ 연수개요

□ 연수목적

○ 스페인, 포르투갈이 경제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비교·분석하고 지방재정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스페인·포르투갈의 소방안전 분야에 대한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시설 견학을 통하여 도정을 위한 각종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시찰과 관광지·문화재에 대한 소방방재 대책 및 안전시설 설치상황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소방안전 분야 정책수립시 다양한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성숙한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함

□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5. 3. 31(화) ~ 4. 10(금) [8박11일]

○ 연 수 국 : 스페인, 포르투갈

○ 연수대상 : 19명 (의원 6, 의원보좌 4, 정책연구 9)

□ 연수내용

○ 유럽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스페인, 포르투갈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운용상황 비교분석 및 지방재정 확충방안 벤치마킹

○ 소방안전시설 구축상황 비교분석 및 실제 운용실태·선진사례 벤치마킹

○ 공연장, 축구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중이용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견학

□ 연수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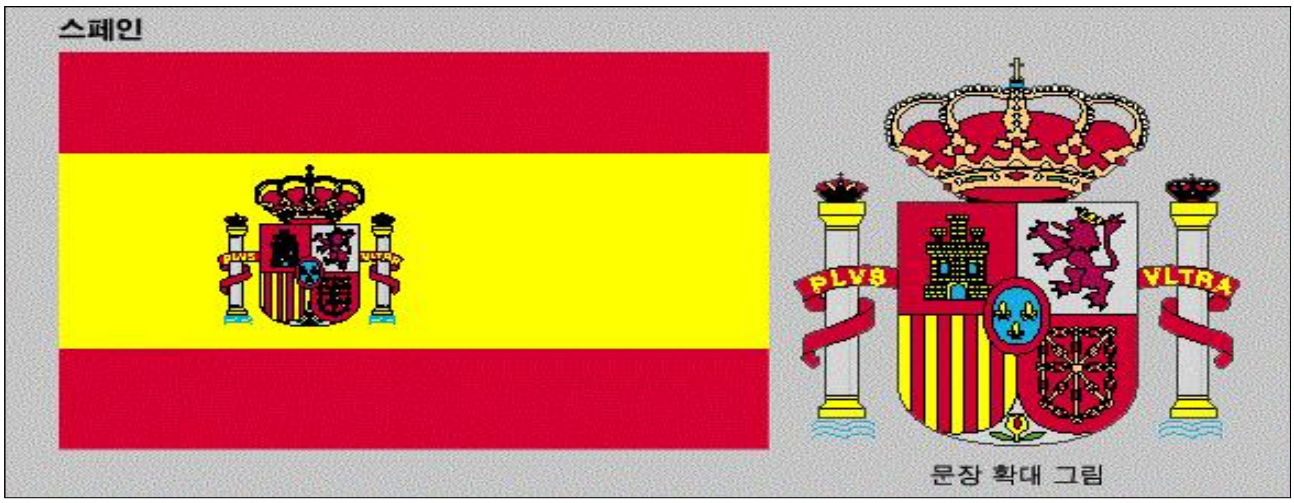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비고
계			19명	남 17 여 2	
도의회 (13명)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6명)	위 원 장	김 연 근 (Kim Yeon Geun)	남	
		부위원장	양 성 빈 (Yang Sung Bean)	〃	
		위 원	강 용 구 (Kang Yong Gu)	〃	
		〃	송 성 환 (Song Sung Hwan)	〃	
		〃	정 진 세 (Jeong Jin Se)	〃	
		〃	허 남 주 (Her Nam Joo)	여	
	행 정 자 치 전 문 위 원 실 (6명)	전문위원	육 홍 기 (Yuk Hong Ki)	남	
		직 원	송 주 섭 (Song Ju Sub)	〃	
		〃	김 갑 수 (Kim Kab Soo)	〃	
		〃	박 미 권 (Park Mi Kwon)	〃	
		〃	손 민 (Son Min)	〃	
		〃	전 영 옥 (Chon Young Ok)	여	
	총무담당관실 (1명)	〃	이 정 로 (Lee Jeong Ro)	남	
전북도 (6명)	기 획 관 리 실 (2명)	〃	박 혁 (Park Hyuk)	〃	
		〃	이 복 영 (Lee Bok Young)	〃	
	대 외 협 력 국 (1명)	〃	김 석 면 (Kim Suck Myeon)	〃	
	소 방 본 부 (3명)	〃	소 철 환 (So Cheol Hwan)	〃	
		〃	송 성 일 (Song Sung Il)	〃	
		〃	강 병 철 (Kang Byung Chul)	〃	

□ 연수일정

일 자	연수지역	주요일정	비 고
3.31 (화)	집 결	○ 전주 집결	1일차
4.1 (수)	출 발	○ 인천국제공항 출발	2일차
4.2 (목)	바르셀로나	○ 바르셀로나 시청 ○ 캄푸 누 경기장	3일차
4.3 (금)	마드리드	○ 프라도 미술관	4일차
4.4 (토)	마드리드	○ 레알마드리드 경기장	5일차
4.5 (일)	꼬르도바	○ 꼬르도바 대성당	6일차
4.6 (월)	그라나다	○ 그라나다 소방서	7일차
4.7 (화)	세비야	○ 세비야 대성당	8일차
4.8 (수)	리스본	○ 폼발 후작 광장	9일차
4.9 (목)	암스테르담	○ 리스본 공항 출발 ○ 암스테르담 공항 경유	10일차
4.10 (금)	도 착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전주 도착 후 해산	11일차

II 연수국 현황

1 스페인 (Kingdom of Spain)





□ 개 요

◈ 면적 : 505,370.0㎢

◈ 위치 : 유럽남부 이베리아반도

◈ 공식명칭 : 스페인왕국, Kingdom Of Spain

◈ 기후 : 지중해성기후

◈ 인구 : 47,370,542명 (2013)

◈ 수도 : 마드리드

◈ 인종 : 갈리시아족, 바스크족, 카스티야족

◈ 언어 : 에스파냐어

◈ 정부/의회형태 : 입헌군주제 / 양원제

◈ 국가원수/정부수반 : 국왕 / 총리

◈ 종교 : 로마가톨릭(94%)

◈ 화폐 : 유로 (€)

◈ 국화 : 오렌지꽃, 석류(준국화)

◈ 대륙 : 유럽

❍ 정식 명칭은 스페인왕국(Kingdom of Spain)으로, 에스파냐(Espana) 또는 이베리아(Iberia, 에스파냐의 옛이름)라고도 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4,964㎞이다. 면적은 50만 5,370㎢이며 인구는 4737만 542명(2013년현재), 수도는 마드리드(Madrid)이다. 종족구성은 라틴계 스페인인, 이베리아인, 게르만인, 아랍인 등이다. 언어는 스페인어가 통용되며, 전인구의 94% 이상이 가톨릭교를 신봉한다. 기후는 여름이 덥고 겨울이 약간 추운 온대성이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며 올리브·보리·포도 등이 재배된다. 석탄·철광석·아연 등 광물자원도 풍부하지만 다른 서구제국에 비해 개발이 늦

다. 그 밖에 관광산업이 스페인경제의 주요 수입원이다. 낮은 물가와 투우·플라멩코 및 이슬람교유적 등에 끌려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대토지소유제가 지배적이며 빈부차가 크다. 2007년 현재 국내총생산은 1조 4389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2066달러이다. 이 나라의 정체는 입헌군주제의 의원내각제이며, 의회는 양원제로 임기 4년의 상원(259석)과 하원(350석)으로 구성된다. 주요 정당은 국민당(PP), 사회당(PSOE), 카탈루냐민주당(CIU), 좌익연합,바스크국민당(PNV), 공산당(PCE) 등이다.

□ 자 연

○ 지형은 반도의 대부분이 평균고도가 800m인 메세타라는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원은 북부가 남부보다 약간 높은 가운데 칸타브리카 산맥, 이베리코 산맥, 모레나 산맥, 포르투갈 접경의 낮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스페인은 지형적으로 중앙고원을 중심으로 5개 지역, 즉 북동부의 에브로 강 유역, 남부의 과달키비르 강 유역, 동부의 발렌시아 해안지역, 북동부 구석의 카탈루냐 산악지역, 피레네 산맥에서 서부 산지에 이르는 북부 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 기후는 북위 27° (카나리아 제도)와 44° 사이에 걸쳐 있는 스페인은 북반구 온대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서부 지중해성기후권에 속한다. 북대서양풍이 연중 계속 불어오며, 사하라로부터 불어오는 덥고 건조한 기류의 영향도 받는다. 피레네 산맥과 칸타브리카 산맥은 여름 동안 아열대기류의 북부 한계를 이루어 건조한 기후가 유지되게 하는 등 스페인 기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스페인

은 기후에 따라 크게 3지역으로 구분된다. 해양성기후인 대서양과 지중해 연안지역의 평균기온은 겨울에 9℃, 여름에 18℃이며, 연평균강우량은 965㎜이다. 중앙 고원지역은 대륙성기후로 평균기온은 겨울에 4℃, 여름에 24℃이고, 연평균강우량은 380㎜ 이하이다. 마지막으로 2,750m 이상의 산악지대는 겨울에 0℃ 이하, 여름에 11℃ 이하의 평균기온과 1,150㎜ 이상의 연평균강우량을 보인다.

○ 북부지역은 습윤한 기후로 낙엽수림과 초원으로 덮여 있고, 북부 고원과 에브로 강 유역은 습도가 낮고 기온차가 심해 주로 곡물이 생산된다. 에브로 강 상류지역과 남부 고원, 안달루시아, 동부지역에서는 올리브와 포도가, 발렌시아와 무르시아의 관개지역에서는 오렌지를 비롯한 감귤류와 쌀이 재배된다. 남동부에서는 관개를 통한 화초, 철 이른 과일, 채소 등의 재배가 이루어진다. 북부와 중남부의 산악지역에서는 소가 사육된다. 고원지대에는 양이 가장 흔한 가축이며, 돼지는 서부와 북서부를 비롯한 스페인 전역에서 사육된다. 피레네 산맥과 북동부 산악지대에서 여전히 곰과 늑대가 발견되지만 대부분의 야생동물류는 거의 멸종되었으며, 스페인 야생염소, 사슴, 멧돼지 등도 보호구역에서나 볼 수 있다.

□ 주 민

○ 지정학적 위치상 수많은 민족이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와 정착했다. 선사시대에는 켈트족 등 북부 아프리카와 서유럽 민족이 반도 북부에 정착했다. 지중해 연안에는 북부 아프리카인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며, 고대 그리스인과 페니키아인들이 동부 및

남부 해안을, 그리고 카르타고인들이 남동부를 차지했다. 그후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반도 전역을 정복했다. 로마의 몰락 이후 반달족과 서고트족 등 게르만계 민족이 이동해왔고, 711년 아랍인의 침입 이후 8세기에 걸쳐 아랍의 지배하에 놓였다. 그러나 이후 유럽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스페인은 프랑스·이탈리아·포르투갈 등 인접 국가와 유사한 지중해 유럽 국가가 되었다. 거의 5세기에 걸친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생활양식과 문화적인 전통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인종적·문화적으로 통합되어 집시를 제외하고 눈에 띄는 소수 민족은 없다. 그라나다·마드리드·바르셀로나·무르시아 등의 도시에서 비교적 큰 집시 공동체가 발견된다. 이외에 일부 극단적인 바스크 민족주의자가 있으나 지난 2세기에 걸쳐 여타 지역과 교류가 이루어져 인종적인 순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인종집단의 구별은 언어를 통해서만 확인된다.

○ 스페인 국민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로마 가톨릭교이다. 대다수의 스페인인들은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결혼하며, 성당 묘지에 묻힌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로 교회가 스페인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미쳤던 막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는 등, 스페인인들의 종교생활이 변해가고 있다. 소수 종교 가운데는 개신교가 가장 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있다. 스페인 개신교 교파 중 전통적으로 우세했던 형제단교회와 복음주의침례교회는 수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밖에 여호와의 증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모르몬교 등이 20세기 중반에 급격히 교세를 확장했다.

○ 스페인의 출생률·사망률은 유럽의 평균치와 거의 일치하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보다 낮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출생률이 떨어

지는 추세인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그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다. 카나리아 제도, 안달루시아, 무르시아, 바스크 등지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높은 편이며, 카스티야라누에바와 카스티야라비에하를 비롯한 고원지대의 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 스페인 국민들의 전통적 이민 형태인 중남 아메리카로의 이민은 스페인 내란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없어졌다. 1950~60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호황의 분위기를 타고 서유럽으로 진출했으나 그후 대부분 돌아왔다. 국내 인구이동은 스페인 내란 이후 두드러졌다. 공업화의 추세로 시골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활발하여 1930년대 중반 이후 도시인구가 3배가량 증가했고, 그에 따라 중앙고원 등지의 소규모 촌락들의 인구는 현저히 감소했다.

○ 인구의 약 2/3는 해안지역에, 나머지 1/3은 전국토의 절반이 넘는 고원과 에브로 강 유역에 거주한다. 그중 내륙인구의 1/3은 마드리드에 집중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바스크·갈리시아·발렌시아·카탈루냐의 해안지역과 카나리아 제도 및 발레아레스 제도의 인구밀도는 서유럽과 비슷한 반면 고원의 북부, 나바라, 아라곤 등지는 매우 낮다. 1930년에는 인구의 1/4만이 도시에 거주했으나 지난 50여 년간 이촌향도의 인구이동이 급격히 진행되어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한다. 넓은 국토와 출생률 감소로 인구폭발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마드리드·바르셀로나·빌바오 등의 산업지역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과잉과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환경오염문제 역시 심각하다.

□ 역 사

○ 스페인에는 기원전 1000년경에 켈트족, 2세기 후에는 페니키아와 그리스인이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기원전 3세기에는 카르타고인에게 반도의 대부분을 점령당했다가 로마제국에 합병되었다. 5세기 초에는 서고트족, 7세기 초에는 무어족의 수중에 들어갔다.

○ 15세기에 들어와 독립국가를 이룬 스페인은 16세기 초부터 17세기 초 사이에는 세계를 제패하고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나, 1588년 무적함대가 영국에 패배하면서 국세가 쇠약해졌다. 19세기에 들어 나폴레옹1세의 침입과 중남미 식민제국의 독립으로 그 몰락은 결정적이 되었다.

○ 나폴레옹 치하에서 저항운동을 통해 민족국가로서의 의식이 싹텄다. 정치적으로는 공화파와 왕당파간의 싸움, 카탈로니아와 아스투리아스의 자치운동 등이 뒤엉킨 상태에서 1931년 공화혁명을 거쳐 프랑코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세력이 1939년 4월 집권하였다.

○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프랑코는 총통으로서 정당부재의 일인독재정치를 계속해왔으나, 1975년 11월 그가 죽자 입헌군주제로 복귀하여 황태자가 국왕에 즉위하였다. 1978년 12월 29일 스페인민주체제확립을 규정한 신헌법을 국민투표로 승인하였으며, 국회는 상하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 1982년 10월 총선에서 곤잘레스가 이끄는 노동자사회당이 대승하여 그 해 12월 신내각이 발족함으로써 스페인민주화 이후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민동맹당이 제2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스페인정국은 좌우양분현상을 가져왔다.

○ 현 후앙 카를로스 1세(Juan Carlos Ⅰ) 국왕은 1975년 11월 취임하여 재임 중이며, 그 아래 실권자 사파테로(Jose Luis Rodrigues

Zapatero) 총리가 2004년 4월 취임한 후 2008년 4월 연임에 성공하여 내각을 이끌고 있다.

○ 대외적으로는 중도좌파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1955년 유엔에 가입하였다. 유럽·아랍·중남미제국과의 우호관계 강화와 지중해 및 대서양상의 평화유지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다.

□ 정 치

○ 스페인은 입헌 군주제 국가이다. 양원제 국회를 갖추고 있으며, 입법부가 있어 분권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국가 원수는 국왕이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상하원은 직접·간접 투표로써 선출된다. 상원의 경우 총 259석이며, 208석은 직접 선거로 나머지 51석은 각 지방 정부의 입법부가 천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임기는 4년이다. 행정부의 수반은대통령이며, 두 명의 부통령이 보좌한다. 내각의 수반인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 200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스페인은 전 세계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계획을 완성한다. 대한민국과는 1950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대(對)스페인 수출은 미국 달러로 약 39억 달러이며, 수입은 8.5억 달러이다. 지금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6개의 시도가 스페인 자치 정부와 자매결연하고 있다.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와의 외교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있으며, 스페인계 혈통의 주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히스패닉계 시민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에서 조차 널리 인식되고 있다. 스페인은 국가적으로도 히스패닉계와 언어와

무역, 역사, 문화에 대한 교류를 넓히고자 하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스페인은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발전한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

□ 경 제

○ 세계은행에 따르면, 스페인의 경제 규모는 세계 8위이며, 유럽에서는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크다. 2007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는 1조 438억달러(월드 팩트북 기준)이며, 1인당 구매력 환산 지수(PPP)는 33,700달러로서 이탈리아에 앞서며 33,800달러의 수치를 보인 프랑스와 일본과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은 2007년 3.8%로 모든 G8개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년 연속 성장률 우위를 점했다. 중도 우파 정부를 총괄하던 호세마리아 아스나르 총리는 1999년 유로화 도입을 성사시킴과 동시에 스페인에 새로운 경제 부흥기를 열었다. 2006년 10월 기준 실직률은 7.6%였으며, 이는 1990년대 초반 20%를 넘어섰던 것에 비해 엄청나게 양호하다.

○ 그러나 계속된 인플레이션이 스페인 경제의 먹구름으로 남아 있다. 또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및 영국과 더불어 가장 교육 환경이 형편없다는 악평도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한편 스페인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유럽 연합 국가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외국계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와 더불어 유럽 국가 중 가장 역동적인 경제 발달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관광산업은 지난 40년간 세계 2위 수준으로 발전해 그 가치만 400억 유로에 달하며 전체 GDP의 5%를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

가 높다. 부동산 거품현상은 스페인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건설업 호황과 함께 전체GDP의 16%, 구직자의 12%를 창출해 내고 있다.

□ 교 육

○ 스페인 교육제도의 큰 틀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다. 만6세에서 만16세까지의 스페인 거주자라면 누구라도 무상의무교육의 혜택이 주어지며, 이는 스페인 및 유럽의 최저근로가능연령에도 부합된다. 스페인의 교육단계는 크게 유아 교육, 초등교육, 중등 의무교육,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으로 구별되어진다.

○ 유아교육(La edudadion infantil)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0세에서 만6세가 여기에 해당되며, 0세에서 만3세까지는 어린이집과정과 만4세에서 만6세까지는 유치원과정으로 나뉘며, 1년은 2학기로 구성된다.

○ 초등교육(La edudadion primaria)은 만6세에서 만12세를 대상으로 하며 무료의무교육에 해당된다. 첫 학기는 만6세에서 만8세, 중간 학기는 만8세에서 만10세, 그리고 최고 학기는 만10세에서 만12세로 나뉜다. 자연, 사회, 문화 환경, 예술, 체육, 스페인어 및 문학, 수학, 외국어를 배우며, 외국어의 경우 최고 학기에 수업이 가능하다.

○ 중등의무교육(La edudadion secundar ia obligatoria ESO)은 새로운 교육단계로 역시 무료 의무교육이다. 만12세에서 만 16세가 대상이며 총 4년으로 구성되어있고 본 교육 이수 후에는 고등교육, 실업계, 예술계, 또는 체육계로의 진학이 가능하다.

○ 고등교육(Bachillerato)은 educacion secundaraia의 마지막 단계로

만16세에서 만18세의 2년 과정으로 의무는 아니며, 대학등으로의 진학을 위한 단계이다. 과목은 선택과목과 공통 과목으로 나뉘며, 본 과정이수 후에 대학 진학 시험인 P. A. U(Prueba de Acceso a la Universidad 또는 Selectividad)의 결과에 따라서 대학 진학이 결정된다.

○ 대학교육 (La edudadion universitaria)은 EHES(European Higher Eduction Space)에 따라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로 나눠지며, 학점(academic credit)이 라는 공통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대학은 총 4년 과정 또는 240 ETSC를 취득해야 하며, 마지막 학년에는 최종 프로젝트와 더불어 최고 6학점에서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한국과의 관계

○ 양국은 1972년 4월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이래 1974년 2월 선원수첩공인 협정, 1974년 4월 수산협력 협정, 1976년 3월 과학기술협력 협정, 1976년 12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1977년 6월 문화 협정, 1988년 11월 체육교류 협정, 1989년 6월 항공 협정, 1994년 1월 투자보장 협정, 이중과세방지 협정, 문화협력 협정, 범죄인인도 협정, 경제협력 협정, 그리고 2000년 1월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보면 1971년과 1972년 스페인에 민속무용단을 파견한 것을 시발점으로, 문화계 인사 및 언론인간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 과거의 체류자는 라스팔마스 지역에 조업중인 어부가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는 364명의 선수단이 참가

하였다. 스페인은 1975년 프랑코 사후 민주화과정에서 스페인내 좌익계 정당이 합법화되고 공산국가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실리추구 및 개방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 1969년 이전까지만 해도 양국의 교역량은 미미한 상태였으나, 1969년 한국의 원양어선단이 카나리아군도에 진출하고 1973년 민간협력기구인 한·스페인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교류는 활발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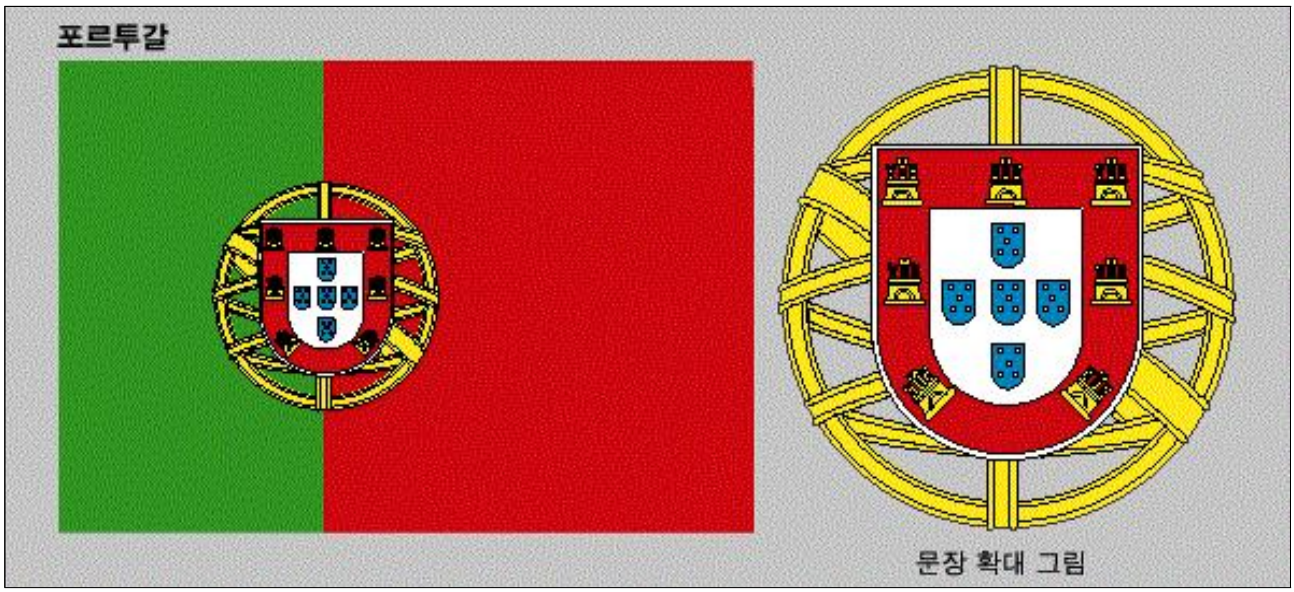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수출액은 2007년 현재 39억 2479만 달러로 주종목은 자동차·기계류·전자제품 등이며, 수입액은 8억 5626만 달러로 주종목은 의약품·타일·식물성유지 등이다.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는 364명의 스페인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2007년 현재 KOTRA를 비롯하여 LG, 삼성, 한진해운 등 10여 개 업체가 진출해 있고, 3118명의 한국민 교민과 488명의 체류자가 있다.

○ 한편, 북한은 2001년 2월 7일 정식 외교관계를 체결하였으며, 2007년 현재 주 이탈리아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 북한의 대 스페인 수출액은 2007년 현재 324만 달러로 주종목은 의류·기계류·전기기기 등이며, 수입액은 201만 달러로 주종목은 철강·기계류·전기기기 등이다.

2 포르투갈 (The Republic Of Portugal)





□ 개 요

◈ 면적 : 92,131.0㎢

◈ 위치 : 유럽서남부 이베리아반도 서부

◈ 공식명칭 : 포르투갈공화국, The Republic Of Portugal

◈ 기후 : 대륙성기후, 해양성기후

◈ 인구 : 10,799,270명 (2013)

◈ 수도 : 리스본

◈ 인종 : 이베리아족, 로마족, 켈트족

◈ 언어 : 포르투갈어

◈ 정부/의회형태 : 공화제 / 단원제

◈ 국가원수/정부수반 : 대통령 / 총리

◈ 종교 : 로마가톨릭(94%), 개신교

◈ 화폐 : 유로 (€)

◈ 국화 : 라벤둘라

◈ 대륙 : 유럽

○ 정식 명칭은 포르투갈공화국(The Republic Of Portugal)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1793㎞이다. 면적은 9만 2131㎢(본토 8만 9000㎢, 부속도서 아조레스섬 2335㎢, 마데이라섬 796㎢), 인구는 1079만 9270명(2013년현재), 수도는 리스본(Lisbon)이다. 종족구성은 이베리아족, 켈트족, 로마족, 게르만족, 무어족 등이다. 언어는 포르투갈어가 사용되며, 종교는 인구의 94% 이상이 가톨릭교를 믿는다. 산업은 유럽 국가 중 비교적 낙후된 상태로서 농업이 주이고, 공업화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밀·포도·올리브 등이다. 2007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2233억 달러, 1인당 국

민소득은 2만 1018 달러이다.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 공화제이며, 의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230석)이다. 주요 정당은 사회당(PS), 사회민주당(PSD), 단일민주연합, 민중당, 좌파블럭 등이다.

□ 자 연

○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포르투갈은 테주(타호) 강에 의해 대략 양분된다. 테주 강은 스페인과의 동쪽 국경선 중간 지점에서 포르투갈로 흘러들어 남서쪽으로 포르투갈의 몇 안 되는 천연항 가운데 하나인 리스본에 이른다. 테주 강의 북쪽에는 국토의 12%가 채 안 되는 해발 700m 미만의 고지대가 북동쪽으로 스페인까지 펼쳐져 있다. 포르투갈의 최고봉은 해발 1,991m로 에스트렐라 산맥에 있다. 이 산맥의 북쪽에는 스페인의 메세타 고원의 서쪽 연장지대가 대서양의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뻗어 있는 연안지대와 어울려 있다. 테주 강의 남쪽에는 해안저지대가 기복이 완만한 내륙지대와 어우러져 주로 저지의 농촌지대를 이루고 있다. 남부의 저지대의 평균 해발은 150m에 불과하며 3%에 해당하는 지역만이 400m를 넘는다. 포르투갈에서 유일하게 지진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바닷속에 잠겨 있는 지브롤터-아조레스 산맥을 따라 근해에 분포해 있다. 유럽 최악의 지진 가운데 하나가 1755년 이 산맥을 따라 일어났으며, 그결과 발생한 해일이 리스본을 덮쳐 최소한 6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 겨울은 온난 습윤하고, 여름은 비교적 기후 변화가 없으면서 건조하다. 리스본에서 1일평균기온은 1월에 11℃, 7월 22℃이고, 연강우량은 700㎜이다. 포르투갈 전체면적의 1/3이 경작지이며, 그

가운데 1/3 이상이 밀·옥수수 같은 곡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매우 건조한 6~8월의 여름에는 연평균강우량의 4%에 못 미치는 비가 내릴 뿐이어서 총농경지의 20%가량이 관개를 해야 한다. 영구목초지가 전국토의 6%에 불과하지만 양·돼지·젖소의 사육을 장려하고 있다. 국토의 40%가 삼림으로 뒤덮여 있으며, 대부분 북부 고지대에 있다. 북부에는 참나무·너도밤나무·밤나무·소나무 숲이 분포하며, 중부에는 코르크와 털가시나무 숲이, 남부에는 스텝과 유사한 관목지대나 초원이 분포한다. 경작용 올리브림과 야생 올리브 숲이 전국 곳곳에 무성하다. 야생동물은 진귀한 편이지만 야생염소·산돼지·사슴·늑대 등이 외딴 산악지대에 서식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편이나 주요광물자원인 텅스텐이 세계총생산량의 4%에 달한다. 몬코르부 철광석 광상에서는 지금도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석유와 천연 가스 매장량이 부족하며, 에너지 자원은 그리 풍부하지 않은 무연탄과 우라늄에 의존하고 있다.

□ 주 민

○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인들은 유럽에서 가장 동질적인 민족에 속하며 지중해 주변 민족들과 신체적 특징이 유사하다. 지리적으로 유럽의 서쪽 끝에 있는 탓에 육지를 정복하려는 자들의 집결지가 되어왔고, 해상 여행자들이 긴 해안선을 따라 정착촌을 세우기도 했다.

○ 로마인·수에비족·서고트족·무어인·유대인이 모두 포르투갈의 영토에 영향력을 끼쳤다. 대부분의 포르투갈인들은 유럽인들의 평균키보다 약간 작고 갈색눈에 검은색의 곱슬머리, 파르스름하

거나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로마 가톨릭교도이다. 주요언어인 포르투갈어는 로망스 제어이다. 아조레스 제도와 마데이라 제도의 주민들도 포르투갈계이다.

○ 포르투갈은 대부분의 지역(70%)이 여전히 농촌으로 남아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북부와 인구밀도가 낮은 남부 사이에 인구와 촌락 형태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이농현상이 심각한데 특히 북부 일부 지역과 중동부지역, 남부의 해안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브라가와 세투발 사이에 있는 해안지대에 저지의 평원과 도시개발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많은 인구가 몰리고 있다. 중앙평원인 미뉴, 해안지역인 알가르베 같은 곳은 인구과밀현상이 심각하다.

○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영아사망률 역시 높다. 인구의 1/4이 15세 미만이다. 평균수명은 남자가 70세, 여자가 77세이다.

□ 역 사

○ 이베리아 반도에 사람이 거주한 것은 적어도 50만 년 전의 일이지만 포르투갈에서 발견된 독특한 최초의 문화는 약 BC 5500년의 것으로 추정된다. BC 1000년에 켈트족이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하여 원주민과 빈번하게 혼인을 맺음으로써 켈트이베리아인이 생겨나게 되었다. 루시타니아인이라 불리는 포르투갈의 켈트족은 이같은 통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BC 140년경 로마인들이 이들을 정복했다. 5세기가 시작되면서 로마 제국은 기울기 시작했고 게르만 민족인 수에비인이 이베

리아 반도의 많은 지역을 침략했다. 469년 로마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서고트족을 보냈고, 수에비 군주국은 몰락하고 말았다. 서고트족은 약 100년 후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되찾았으나 711년의 이슬람교도의 침공으로 그리스도교도들은 포르투갈의 북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 지역은 포르투갈 주(州)로 불렸으며, 오늘날 포르투갈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재정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117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포르투갈 주는 아폰수 엔리케의 통치하에 왕국을 이룩했다. 뒤를 이은 왕들도 재정복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1270년 아폰수 3세 때 지금과 같은 포르투갈의 경계선이 확정되었다.

○ 1385년 왕위가 아비스의 가문으로 넘어갔으며, 아비스 왕조의 군주정치하에 포르투갈은 유럽 최초의 중앙집권국가가 되었다. 아비스 왕조의 군주들은 탐험주의를 적극 권장하여 많은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인도・인도네시아・중국・중동・남아메리카 등지를 탐험했다. 1580년 아비스 가문이 멸족되자 왕위는 혼인을 통해 스페인에게 넘어갔다. 스페인의 통치자들은 포르투갈을 소홀히 했고, 1640년 그들을 폐위시킨 혁명으로 포르투갈 왕위는 포르투갈의 브라간사의 가문에 이양되었다. 19세기초 나폴레옹 전쟁으로 포르투갈 왕실은 1807년 브라질로 망명했다. 1815년 브라질은 왕국으로 승격되었고 포르투갈과 연합했다. 군주의 부재하에 1820년 포르투갈에서는 제헌의회가 소집되었다. 여기에서 문서가 작성되어 주앙 6세의 승인을 받았으며, 그는 1821년 브라질에서 돌아왔다. 입법주의자와 절대전제주의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격렬한 내란이 일어났다. 내란은 1834년 끝이 났지만 정치적 불안은 계속되어 결국 1910년의 혁명으로 군주제가 전복

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공화국 역시 불안한 정치상황 속에서 수난을 겪다가 1926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정권은 결국 안토니우 데 올리베이라 살라자르에게 넘어갔다. 사실상 독재자인 그는 재무장관(1928～40) 겸 총리(1932～68)를 역임하면서 포르투갈을 통치했다. 그의 식민정책은 아프리카에서 곤혹스러운 전쟁을 수행하도록 강요받은 군부 지도자들 사이에 원성을 불러일으켜 1974년 결국 이들이 주동이 된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결과 식민지들의 독립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초기 중도·보수적 성향의 군부가 장악했던 정부는 잠시 군부의 급진파와 좌파 및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중도파가 집권했다. 1976년 제헌의회는 사회주의로의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승인했으며 총선에 따라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1980년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정권을 잡은 중도우파는 1976년의 헌법에서 좌파적 성향을 배제시켰으며, 1982년의 헌법개정으로 포르투갈의 민정이양이 완료되었다. 1983년 구성된 사회당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orty/PSD)의 연립정부가 1985년 붕괴된 이후 PSD 정부가 들어섰고, 1986년 마리우 수아레스는 60년만에 최초의 민간인 대통령이 되었으며 1991년 재선에 성공했다.

□ 정 치

○ 포르투갈의 국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를 가미한 의원 내각제의 공화국으로 대통령, 정부 의회로 3권이 분리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군통수권자로 군총사령관을 겸임하게 된다. 대통령은 18세 이상의 국민들에 의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

며, 만약 최상위 후보자가 과반수를 넘지 못했을 경우, 상위 두 후보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된다. 그 임기는 5년이고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또한 5년이 지나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35세 이상이다. 대통령은 국가평의회의 의장으로 국가평의회를 주재하며, 의회선거일 지정, 의회비상소집 및 해산, 수상 및 각료 임명, 내각 해산 및 자치기관 해체 등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 한편 직무상 권한으로는 국군 통솔권, 법률제정공포권, 비상계엄선포권, 선전포고, 각종 비상 조치권, 법률안 거부권 및 사면, 감형권, 정부의 제안에 의한 대사 임명권, 국제조약 공포권 등을 가진다.

○ 정부는 국가의 모든 정책 수행 기관이며 최고 행정기관으로 수상, 장관 그리고 우리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처장이나 청장으로 이루어진다. 수상과 장관은 각료회의를 구성하며,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을 진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집권당이 되며 집권당 대표 또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된다. 수상임명은 대통령이 원내정당들과 협의 후 지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필요에 따라 부수상직의 설치도 가능하다. 수상은 정부 수반으로 최고 행정기관인 행정부의 정책을 운영하며, 각료 의회 의장으로서 모든 장관의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정함으로써 부처 간의 원활한 운영과 국정 방향, 국가의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조정한다.

○ 의회는 포르투갈 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총2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은 해외포함 22개 지역의 중선거구에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의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의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의원은 겸직위반, 의회 출석상태 불량, 당적 상실 및 파시스트 조직 참여가 확증 될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의회의장은 집권당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의회 해산 대는 9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의회는 원내 정당과 국가평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에 의해 해산될 수 있으나, 비상사태 하에서는 의회해산이 불가능하다. 시로 구성된 의회는 선거의 최종결과가 판명된 후 10일 후에 개회하게 된다. 정기의회는 당년 10월 15일부터 6월 15일간이며, 임시의회는 운영위의 주도로 열리며, 대통령의 요구로 특별의회를 수집할 수 있다. 의회는 의장1명과 부의장 4명을 두고 있으며, 헌법위원회 등 13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경 제

○ 포르투갈의 산업·경제 구조는 에스파냐·그리스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이다. 2006년 산업별 GDP 구성비율은 농업 6.6%, 공업 28.6%, 서비스업64.9% 이지만 노동력별 구성비율은 농업 10%, 공업30%, 서비스업 60%이다.

○ 1986년 EU가입을 전후로 사회주의적 경제구조가 자유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경제정책의 기본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경제개방효과로 인하여 그 후유증도 크다. 그러나 EU 가입은 포르투갈 국민들의 경제발전 심리를 자극하여 내수 증가, 생산의욕 고취 및 공급 증가라는 선순환을 낳아, 경제에 활력이 부여되었다.

GDP 대비 총 고정 자본은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1989년 7월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운수통신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헌법이 발효되었다. 1994년 이후 경기회복이 가속화되어 수출, 투자 및 소득증대에 힘입어 1996～1997년간 실질성장률은 3～3.5%로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국가 내 최고수준을 기록했고 저인플레이션(2006년 2.5%), 저실업률(2006년 7.6%), 환율 안정 등으로 수년간 안정적인 성장이 이룩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수출 467.6억달러, 수입 677.4억 달러로서 21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나타내고, 2006년 1인당 GDP는 19,800 달러, 공공부채는 GDP의 67.4%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EU 국가 중에서 하위수준인 경제성장률, 재정 건전성 및 공공·의료 서비스 악화, 연간평균임금의 최하위 등이 문제이다.

□ 교 육

○ 교육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편이며 유럽 국가 중 성인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 교사 비율이 9 : 1로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5-65세 성인 중등교육 이수율은 21.2%로 유럽평균 65.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교육개혁 문제가 포르투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포르투갈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졸 전까지 44.8%에 이르는 중퇴율이다.)

○ 1960년에는 6년간의 의무교육제가 도입되었고, 1990년 초.중 12학년까지 의무교육이 9년으로 연장됨(6세~14세)

- 무상 유아교육 : 3세 ～ 6세

- 9년 의무교육 : 6세 ~ 14세
- 3년간 고등교육 과정 : 14세 ~ 18세

○ 고등학교 이하는 교육부가 주무부처이고 18개 종합대학 및 98개 고등교육기관(전문대 등)은 과학기술대학부가 주무부처이다.

○ 최근 개혁 동향

- 초등학교 구조조정 : 학생수 10명 미만의 학교 폐교
- 학교 간 통폐합 촉진 및 중등학교 교과과정 개혁
-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의 재편
-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장 및 디지털 학습강화
- ICT 의무교육 및 중등학교이상 학교 내에 ICT실 설치 추진
- 취학전 어린이(3~5세)를 위한 사회기반의 양적확장 및 질적제고
- 조기중퇴자 감소 : 2.7%(2004) → 2.0%(2006) → 1.8%(2007) / 9학년기준

□ 한국과의 관계

○ 우리나라는 1961년 4월 15일 정식수교한 후 1975년 6월 11일 주포르투갈 대사관을 개설하였으며, 2006년 현재도 상주공관을 개설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 입국한 최초의 포르투갈인은 마카오에서 일본으로 항해 도중 폭풍으로 난파된 무역선장으로, 1577년 조선에 입국한 바 있으나 그 뒤 그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는다. 학계의 통설로는 1593년 입국한 신부 세스페데스(Sespedes)가 최초의 서양인으로 되어 있다.

○ 포르투갈은 종래 아시아지역에 대하여는 마카오와 관련하여 중국, 경제대국인 일본에 대한 관심을 제외하고는 극동정세에 무관심한 입장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널리 알려져 많은 관

심과 협력을 보이고 있다.

○ 양국은 1977년 12월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이래, 1979년 9월 사증 면제 협정, 1984년 6월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 협정, 1985년 1월 경제기술 협정, 1991년 7월 문화 협정, 1996년 8월 투자보장협정, 1997년 12월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 우리나라는 1979년 9월 민속예술단을, 1980년 9월에는 국악연주단을 파견하여 공연하였으며, 1983년 1~2월에는 리스본에서 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 우리나라의 대 포르투갈 수출액은 2007년 현재 4억 1413만 달러로 주종목은 전자제품·자동차 등이고, 수입액은 2억 174만 달러로 주종목은 건축자재・컴퓨터부품 등이다.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는 99명의 포르투갈선수단이 참가하였다. 2007년 현재 KOTRA를 비롯하여 삼성전자, 한라공조 등의 업체가 진출해 있고, 54명의 한국민 교민과 99명의 체류자가 있다.

○ 한편, 북한은 1975년 4월 15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78년 6월 17일 주 포르투갈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지만, 1995년 3월 폐쇄하였다. 북한의 대 포르투갈 수출액은 2007년 현재 15만 달러로 주종목은 전기기기・광학제품 등이고, 수입액은 없다.

Ⅲ 주요 연수결과 및 시사점

1 선진국 재정운용 벤치마킹

□ 연수개요

○ 일　　시 : 2015. 4. 2(목) 10:00 ~

○ 연 수 지 : 바르셀로나시청

○ 면 담 자 : 바르셀로나시청 관계자

○ 연수목적 : 유럽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스페인 정부의 재정운용 벤치마킹

□ 연수결과

○ 스페인은 2011년 재정적자 규모가 예상(GDP의 6%)보다 훨씬 높은 GDP의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채 스프레드의 급격한 상승 등 외채 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세금 불인상 등의 총선공약을 번복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증가 및 유럽경제 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예산삭감과 세금증액 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 구조조정 주요내용

1) 예산삭감

① 중앙 정부 등 공공 부문의 예산 89억 유로를 감축

② 공무원 급여동결 및 근무시간 연장(주35시간 ⇒ 37.5시간)

③ 공무원 퇴직시 신규임용 중지(군, 경찰 보건, 교육 등 일부 분야는 예외 인정)

④ 최저임금 동결(월 641유로)

⑤ 정당, 노조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 삭감

※ 상기 예산 감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금은 1% 인상하였으며(해당자 9백만명, 13.8억유로 증액) 장기실업자(12.5만명)에 대한 실업수당도 현수준(월 400유로)을 유지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유념함

2) 세금증액

① 개인소득세(IRPF)를 소득수준에 따라 0.75%에서 7%까지 인상

② 재산세(IBI) 증액을 통한 연 9.18억 유로의 증대세수를 지방정부에 지원

③ 저축소득세를 소득 규모별 2% ~ 6% 인상

□ 시 사 점

○ 스페인은 1990년대 이후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의 실권을 쥐자 선거 때마다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였고 자치주 간의 지나친 복지 경쟁으로 북유럽 못지않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스페인 지방정부는 주요 병원을 모두 소유하고 진료비와 약값을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또한 스페인 대학의 등록금은 연 100~150만원 낮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정부가 대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복지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스페인의 조세부담률은 20.9%로, 덴마크(47.2%)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는 물론 우리나라(21.7%)보다도 낮은 상황으로 전형적인 저(低)부담 고(高)복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유럽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 경제를 이끌어온 부동산·건설 경기가 주저앉자 토지와 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급감하였으며 이는 대규모의 복지적자로 이어져 스페인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

○ 우리도는 스페인의 경제위기 극복 사례를 거울삼아 지방정부에서 남발하고 있는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은 없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정부는 선진국의 재정운영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여 제2의 IMF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방문사진



시청 입구



시청 및 광장



집무실



집무실



회의실



회의실



시청 내부



시청 내부



시청 내부



시청 내부



시청 내부



시청 내부



시청 내부



시청 내부



시청 내부



시청 광장에서 기념촬영

② 선진국 소방서 운용상황 벤치마킹

□ 연수개요

○ 일　　시 : 2015. 4. 6(월) 10:00 ~

○ 연 수 지 : 그라나다 소방서

○ 면 담 자 : 그라나다 소방서 관계자

○ 연수목적 : 스페인의 소방안전시설 구축상황 비교분석 및 실제 운용실태·선진사례 벤치마킹

□ 연수결과

○ 주요 질의응답

① 2014년 3,000건 출동하였고 이중 3% 정도가 화재인데 화재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 여름철에는 화재 발생이 거의 없고 겨울에는 가정집 전기난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나 벽돌과 같은 자재를 이용하여 화재 발생이 적다. 또한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 난방을 위한 전열기구 등의 사용률이 낮다.

② 건물이 밀집되어 붙어있는 경우 어떻게 진화하는가?

➡ 소방차량이 대형과 골목에 사용하는 소형차량이 있어 출동 및 진화에 사용되고 있으며 소방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는 중간에 소화전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바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압력이 5~6kgf/㎠ 정도여서 사용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

③ 소화기의 종류는 어떠한가?

➡ 전부 ABC를 사용한다.

④ 소화기 설치 위치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지?

➡ 0 ~ 1.7m까지 설치 가능하다.

⑤ 소화기의 위치가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한쪽 바닥에 위치해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 바닥에 놓는 것이 화재 진압에 유리하다

⑥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운전(모세의 기적)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

➡ 소방차량이 지나가면 무조건 비켜준다.

⑦ 잘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규정 때문인가? 아니면 국민의식 때문인가?

➡ 국민의식 때문이며 양보운전의무에 대한 법률규정은 없으나 필요시 법적 처벌은 가능하다.

⑧ 소방공무원 임용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

➡ 경쟁률은 평균 800:1로 매우 높다.(보수 월 250 ~ 360만원정도)

⑨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는 어떠한가?

➡ 24시간 15분 당직(08:45~익일 09:00), 근무 후 4일간 쉰다.

⑩ 소방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국가에서의 예산지원은 있는지?

➡ 전부 지방예산이며 1년 예산은 144억원(1,200만 유로)으로 장비, 인건비 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소방인원은 180명이며 그라나다의 인구는 30만명 정도이다.

⑪ 의용소방대가 있는지?

➡ 소방인원을 도와주는 민간단체가 있다.

⑫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에서 보질 못했는데 스페인은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가?

➡ 지하식 소화전으로 되어 있다.

⑬ 소방차 탑승인원 및 출동인원?

➡ 소방차 출동인원은 선발차(2명), 펌프차(6명), 사다리차(3명) 등 총 11명이며 화재진압과 구조대원이 분리 되어있지 않고 소방관 누구나 화재진압과 구조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구급차는 소방에서 운영하지 않고 병원에서 운영, 필요시 지원요청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⑭ 현장도착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 4 ~ 5분 안에 도착한다.

⑮ 소방헬기가 운영되고 있는지?

➡ 그라나다에는 없지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와 같은 대도시에는 운영하고 있다.

⑯ 외상후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 그라나다시에서는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⑰ 소방공무원 임용전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 200시간(1달 반 정도)의 교육 후 임용된다.

⑱ 스페인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어떻게 되는가?

➡ 스페인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다.(최소연령 18세)

□ 시 사 점

① 소방장비



개인안전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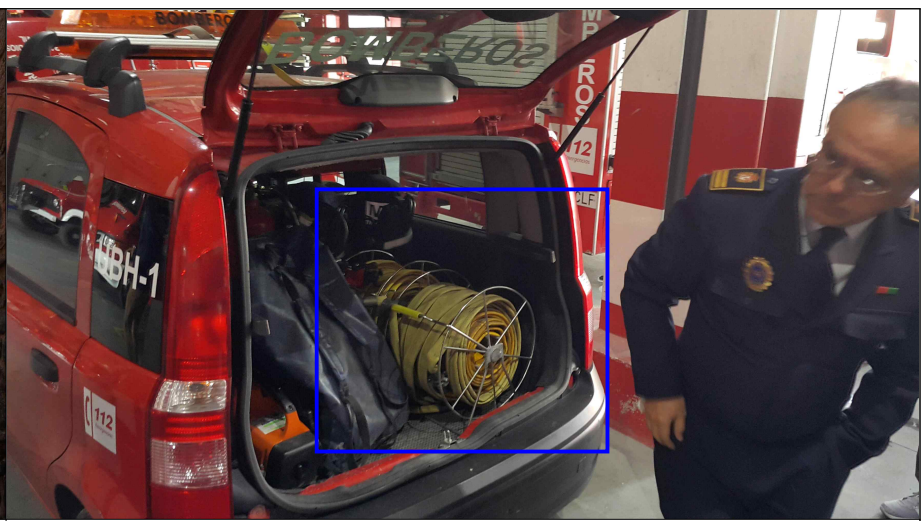


소방장비 설명

○ 노후 소방차량과 개인안전장비의 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슈가 되는 것과 달리 스페인에서는 소방차량에 대한 내용연수가 없으며 소방장비의 교체는 '사용가능여부'가 큰 기준이 된다. 또한, 소방예산이 순수 지방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장비의 교체를 위한 예산편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며, 정부, 시민(의회) 모두 안전을 우선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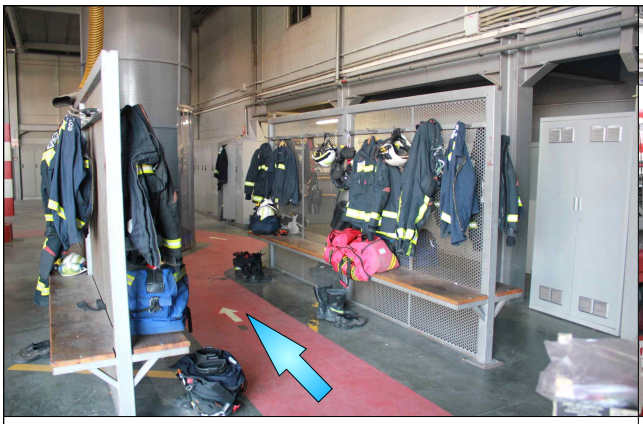
좁은 골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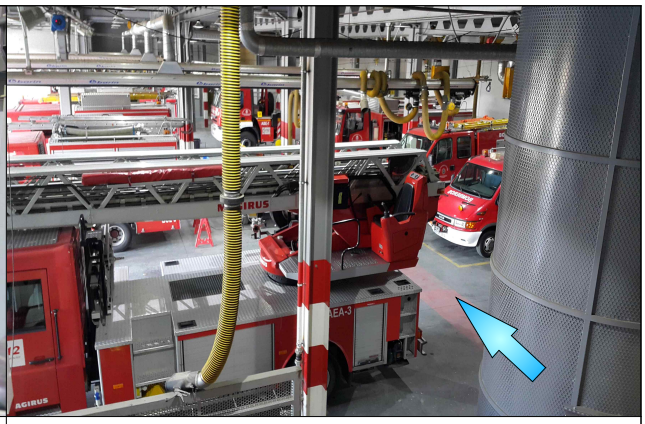
화재진압장비

○ 역사적인 유적이 많은 만큼이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곳이 많은 스페인에서는 그들 나름의 화재진압대책이 있다. 건물과 건물사이가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건물 주변에 기설치된 소화전과 위 사진의 화재진압장비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진압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의 비상소화장치와 유사하나, 스페인의 경우 소방차에 직접 실고 다닌다는 차이가 있다.

② 출동준비



대원 출동 동선(개인안전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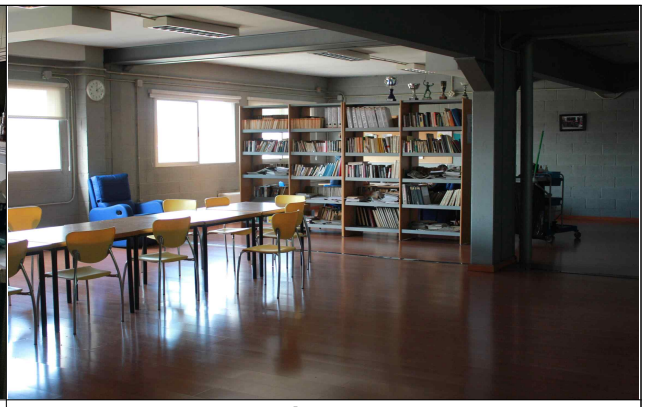
대원 출동 동선(소방차 탑승)

○ 출동을 위한 차고 내에서의 대원 안전사고를 방지를 위한 동선이 눈에 띈다. 출동지령이 내려지면 대원들은 위 사진과 같이 붉은색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개인안전장비 착용 후 출동차량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소방차량에 탑승하게 된다. 차량 앞에서 접근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장비의 착용이 소방차량 탑승 전(스페인)이냐, 탑승 후(우리나라)이냐의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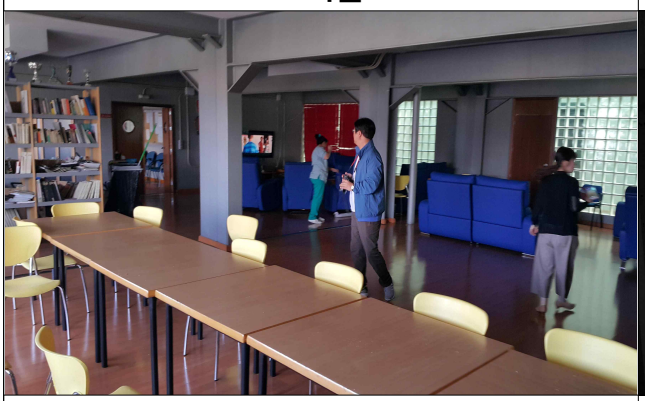
③ 직원근무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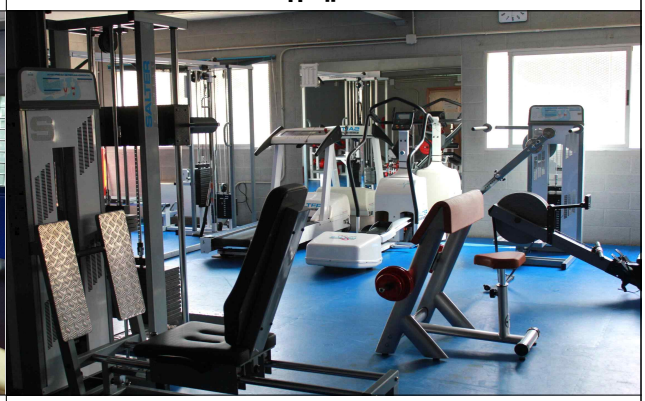
조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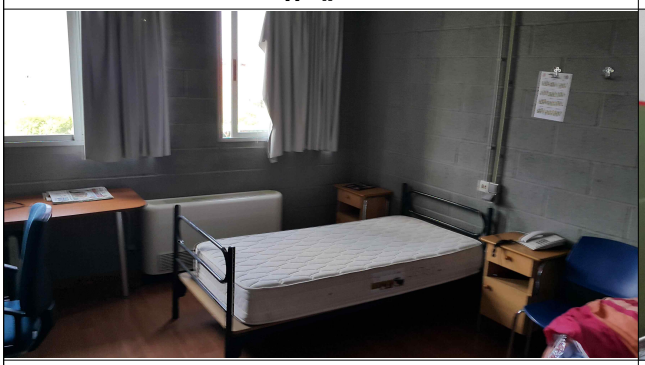
휴게소



휴게소



체력단련실



대기실



체육관

○ 스페인 소방관의 교대근무는 4교대 ~ 5교대이며, 24시간 근무 후 4일 ~ 5일을 쉰다. 또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 중 체력단련, 음식 섭취,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소방관의 피로도를 낮추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방문사진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기념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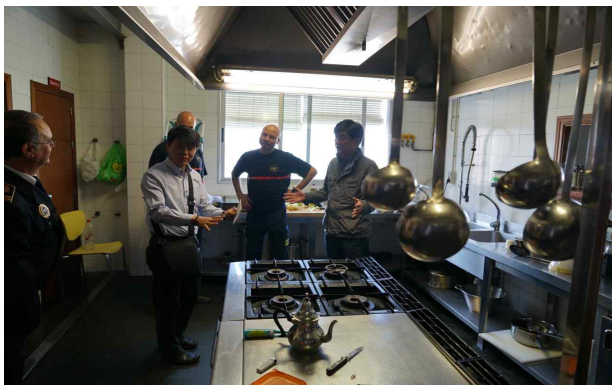
간담회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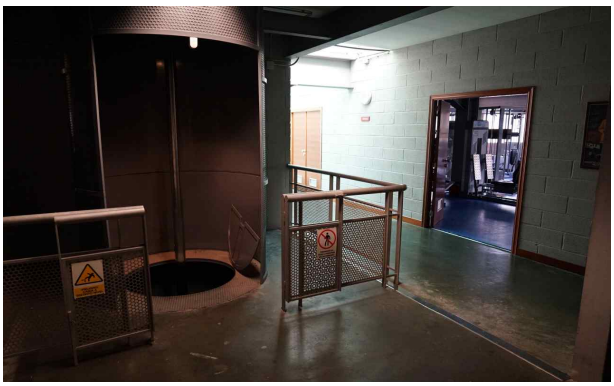
소방서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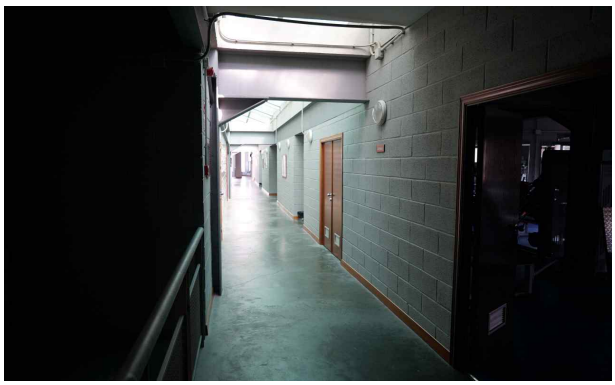
소방서 견학



소방서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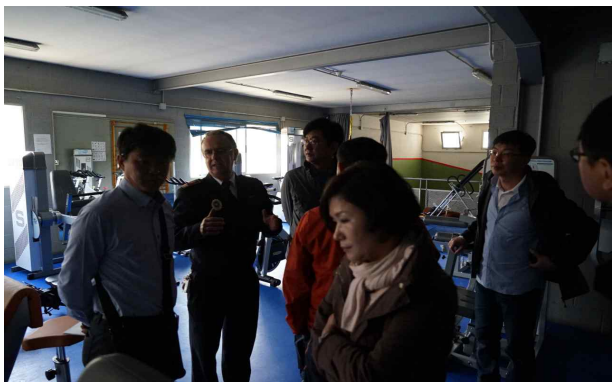
소방서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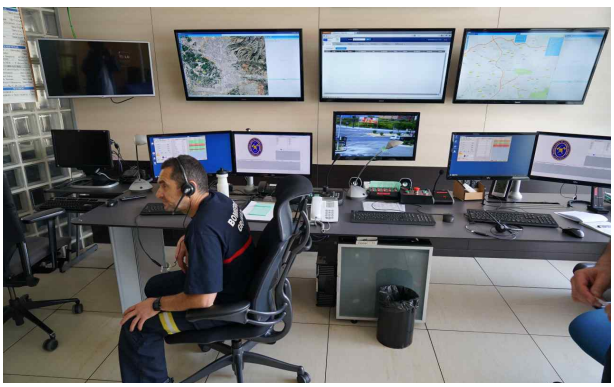
소방서 견학



소방서 견학



소방서 견학



소방서 견학



소방서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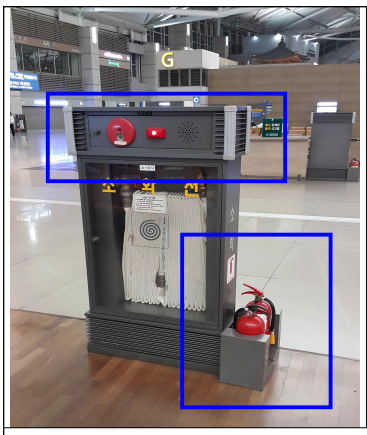
소방서 기념촬영



소방서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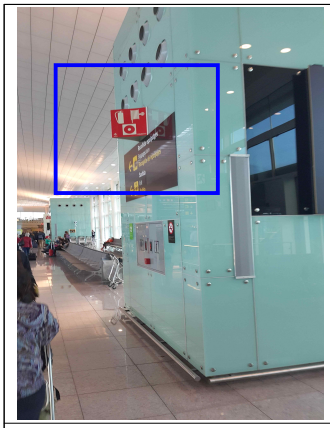
3 선진국 소방안전시설 비교분석

① 공항 소화기구 및 옥내소화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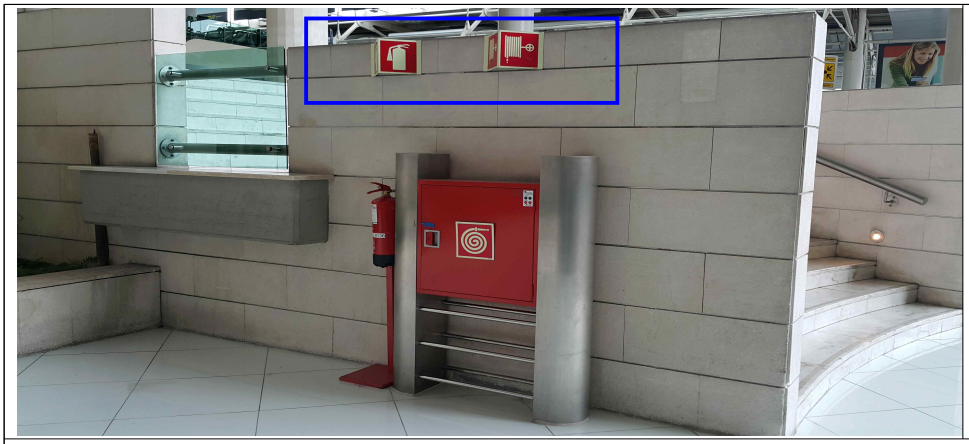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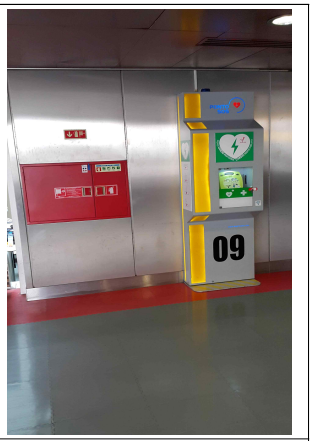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한국)





파리드골공항(프랑스)





리스본공항(포르투갈)

□ 시 사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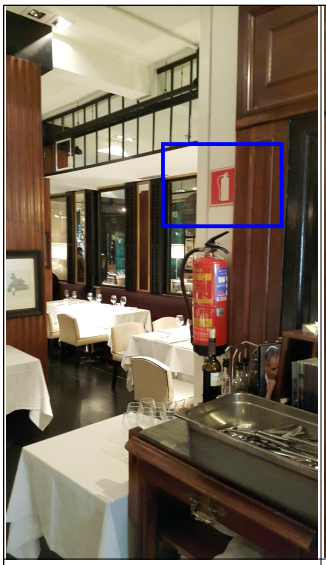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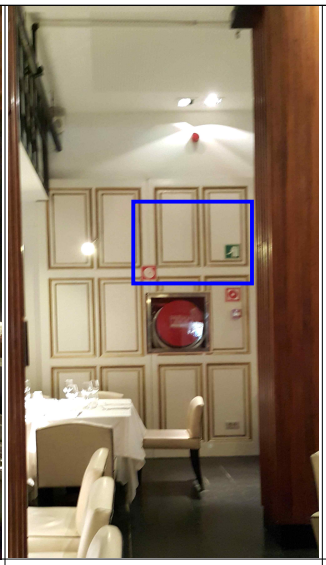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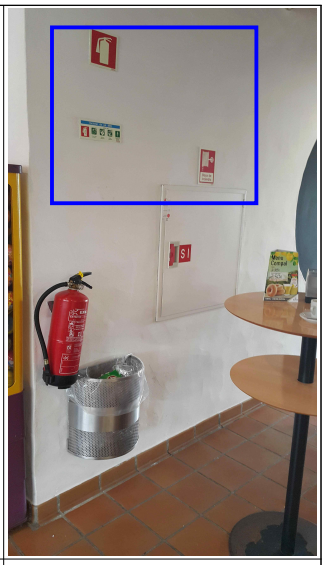
○ 국외연수를 위해 이용했던 공항은 모두 국제공항이어서 연중 많은 이용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항은 소방법령상 운수시설로 분류되며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어있다. 국외연수 중 이용하게 된 프랑스 드골공항·포르투갈 리스본공항과 인천국제공항과의 소화기구(옥내소화전 포함) 차이점은 "사용자 중심" 여부이다.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소방시설 등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나 소화기를 찾기 위해서는 위의 타 공항에 비해서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공항은 소화기 표지가 대부분 소화기(보통 바닥에 비치) 바로 위 30~50cm 정도에 부착되어 있어 공항내부가 이용객으로 밀릴 경우 사람이나 설치물에 의해 가려져 위치파악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드골공항과 리스본 공항의 경우는 소화기 표지가 크고 성인 눈높이 보다 위쪽에 부착되어 제자리에서 둘러보는 것만으로 소화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 옥내소화전의 경우는 드골공항과 리스본 공항에서 모두 호스릴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호스릴옥내소화전의 경우 일반 옥내소화전 보다 토출량이 적고 설치비가 고가이지만, 노약자 등이 혼자 힘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화재 시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사용자가 맞춰 이용하는 시설중심이라면 드골공항 및 리스본공항의 경우는 사용자에 맞춰 소방시설을 설치한 사용자 중심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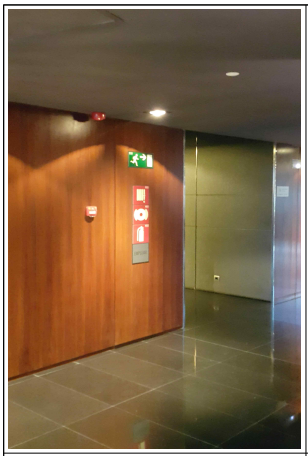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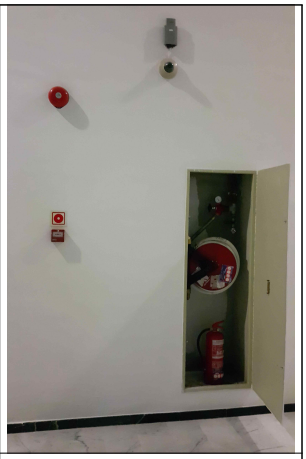
② 다중이용업소(식당, 휴게소) 비교

			
스페인(바르셀로나)	스페인(마드리드)	스페인(사라고사)	포르투갈(리스본)

□ 시 사 점

○ 식당 및 휴게소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화기 및 소화전 표시가 테이블 위쪽에 부착되어 이용객들은 유사시 착석상태에서도 소화기구 위치확인이 용이하였다. 또한, 소화기를 바닥이 아닌 벽에 고정시켜 놓은 것이 우리나라와 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바닥에서 150cm 이내에서 비치하게 되어 있으나 대체로 바닥에 놓고 사용하여 소화기 표시가 가리키는 위치와 실제 소화기가 비치된 위치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경우 대부분 벽 또는 부속물에 소화기 위치를 고정하여 소화기 위치확인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식당 등의 관계자도 소화기 위치확인이 쉽고 점검도 편하다는 입장이었다. 우리나라도 규정상 가능하므로 행정지도나 교육을 통해 관계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만큼 관계자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수동적이던 자세를 바꿔 자체점검을 강화하거나 피난로를 직접 안내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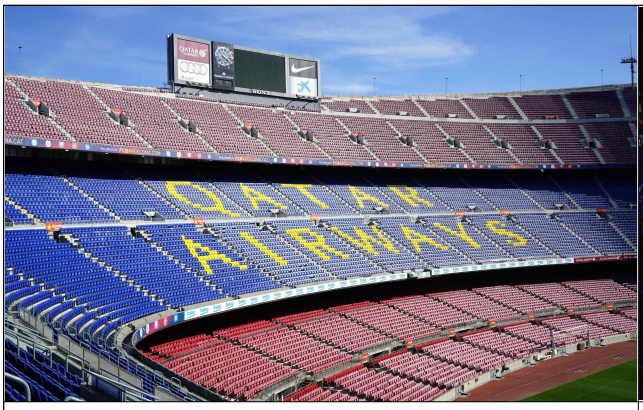
③ 숙박시설 비교

		
스페인(마드리드)	스페인(그라나다)	포르투갈(리스본)

□ 시 사 점

○ 공항과 마찬가지로 숙박시설 역시 호스릴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대비하고 있다. 마드리드에서는 소화전 표시는 보이고 소화전함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였으나 표시 뒤에 바로 소화전함이 있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실내 인테리어상 소화전함이 직접 확인되지 않아도 소화전함 표시가 사용자 눈에 잘 띄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다. 각 소방시설에 대한 표시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는 대목이었다. 소방시설의 표시가 있는 곳은 해당 소방시설이 있고 바로 사용하면 되었다. 즉 소방시설 표시를 눈에 잘 띄게만 하면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다. 표시 또한 글자가 아닌 소방시설을 형상화한 그림이어서 외국인도 바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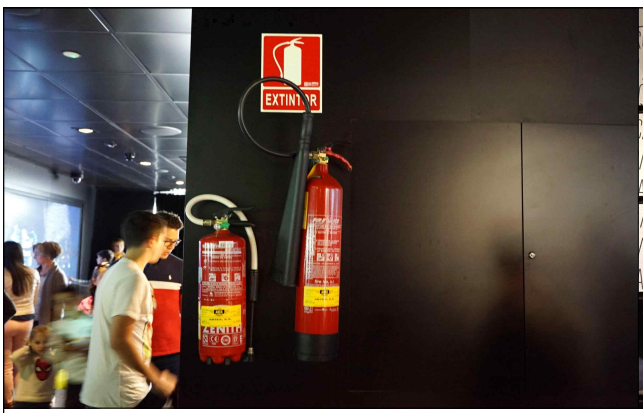
④ 다중이용 체육시설(FC바르셀로나 · 레알마드리드 축구경기장)



FC바르셀로나 축구경기장(캄푸 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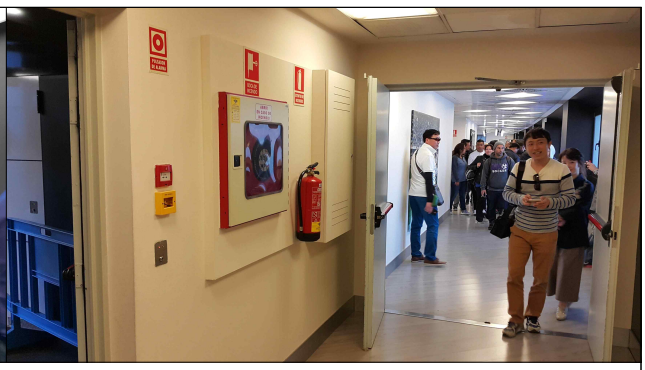
레알마드리드 축구경기장(산티아고베르나베우)





FC바르셀로나 축구경기장(캄푸 누)





레알마드리드 축구경기장(산티아고베르나베우)

□ 시 사 점

○ 8~10만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스페인의 축구경기장은 소방의 측면 보다는 유사시 대피 및 피난로 확보가 관심사항이었다. 대규모의 관중을 수용해야하는 경기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관중들이 제자리를 찾아야하고 경기 후에도 빨리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런 사항은 경기장을 설계하거나 증축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되며 이동통로와 각 관문(Gate)의 수 등의 설계에 반영된다고 한다. 각 이동통로에서는 소화기구 표시와 같이 알기 쉬운 표시가 부착되어 경기장 밖으로 안내한다. 전북의 월드컵경기장과는 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관리사항 등은 동일하다. 지진 등의 재난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가는 관람객들의 질서 의식에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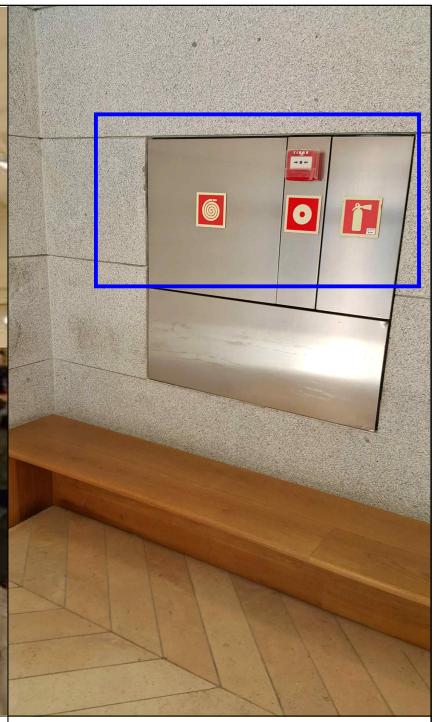
○ 관광객의 이동로에는 꺽어지는 코너가 있는 곳마다 소화기 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이 있었고 고개를 돌리면 어디에서든 소화기 표시를 찾을 수 있었다. 피난 유도표시 또한 유사시를 위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었다. 경기장 시찰중 관계자나 외국인 관광객들은 소화기나 소화기 표시가 관람에 부정적인 영향(미관상 영향)을 주기 보다는 안전을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관상 한쪽 구석에 비치하는 것과는 의식의 차이가 있었다.

⑤ 다중이용 문화시설(프라도 미술관)



미술관(전시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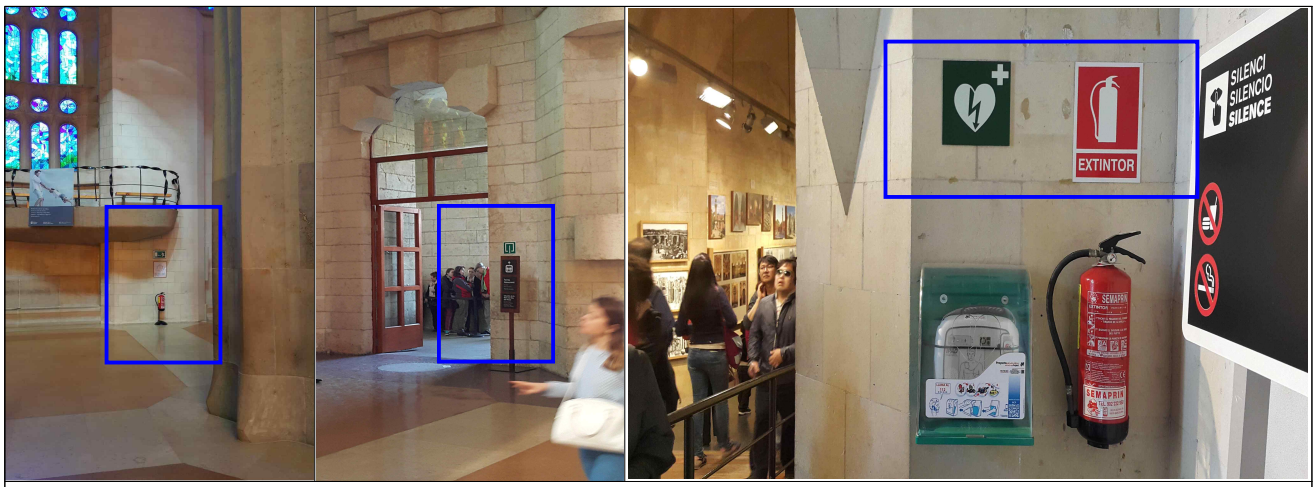


미술관(전시장 외부)

□ 시 사 점

○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인 프로도 미술관에서는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제약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촬영을 할 수 없었다. 기본적인 소방시설은 전시장 내부에는 소화기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피난유도등이 각 출구에 설치되어 있다. 전시장 외부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각 전시실에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는 안내 및 관리요원은 전시물의 관리와 안내 및 비상시 대피유도의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피난 유도등이 전시실 출구마다 설치되어 있어, 화재 등 비상 시 대피로를 못 찾아 탈출에 실패하는 일은 없을 듯 했다.

⑥ 종교시설(사그라다파밀리아 · 똘레도대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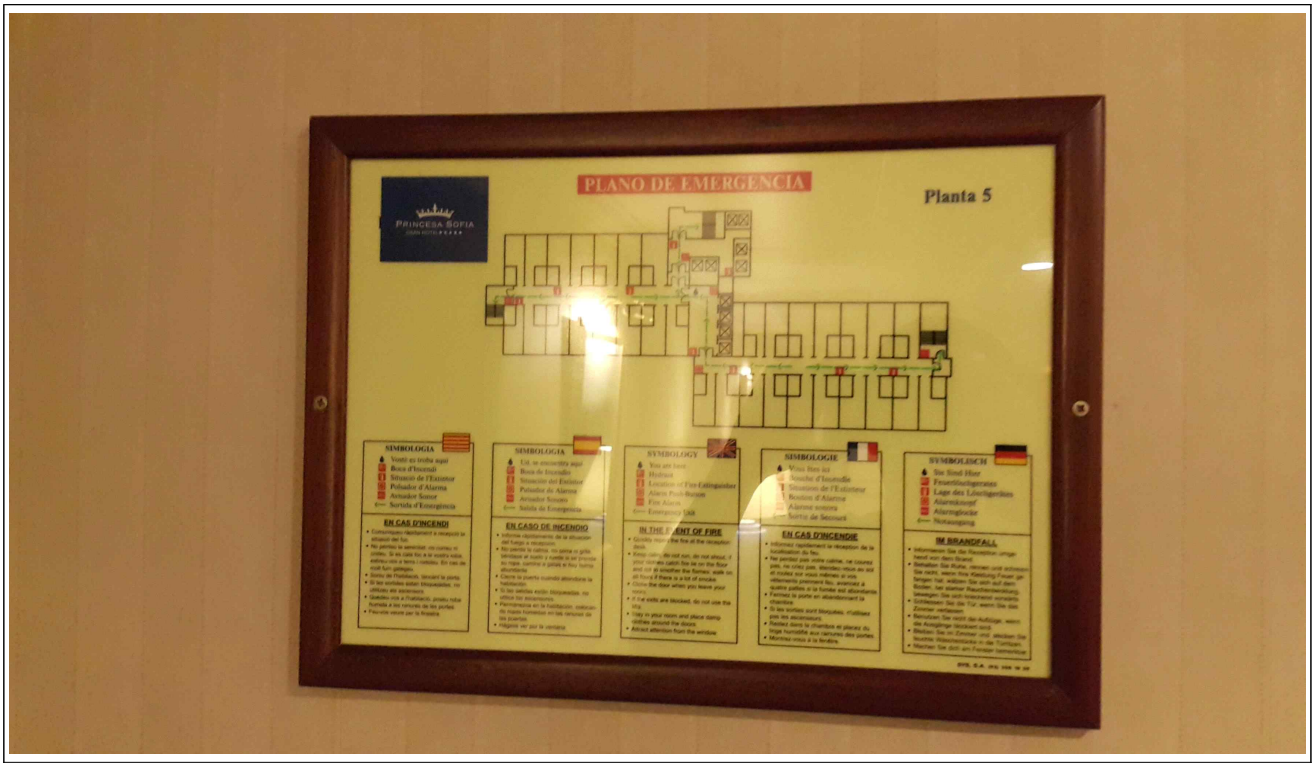
똘레도 대성당

□ 시 사 점

○ 사그라다 파밀리아, 똘레도 대성당, 알함브라 궁전 등 주요 문화유적 및 관광지는 모두 석조건물이 주를 이뤘다. 이로 인해 화재를 대비한 소방시설은 간단한 소화기를 제외하고 찾아볼 수 없었으며, 출입 인원수를 일정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관광객이 일시에 몰려 안전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고 있었다.

○ 반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지하에 마련된 전시실과 카사밀라의 전시관에는 가우디와 관련된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초기 진화에 충분한 소화기(이산화탄소 소화기 포함)가 비치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한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도의 주요 관광지에도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강화하여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은 목조건물이 많고 다수의 관광객이 오가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

⑦ 기타(피난안내도)



피난안내도

□ 시 사 점

○ 관광객이 많은 숙박시설 및 관광지 인근 식당 등에는 모두 다국적 언어로 제작된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에서 피난안내도 작성 시 외국어를 병기하고 있다. 도내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인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자체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피난안내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Ⅳ 기타 연수결과 및 시사점

1 선진국 관광 홍보정책 벤치마킹 및 비교분석

□ 스페인의 외국인 방문객 현황

○ 스페인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2010년 외국인 방문객수는 5,220만여명으로 자국 인구(4,050만명)를 능가하는 수치였다.(WTO : 세계관광기구 선정)

○ 또한, 유럽의 경제위기가 불어 닥친 지금도 스페인은 국가 전체 수익의 10%를 관광수익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관광기구 선정 여행자 수표의 사용기준으로 본 직접 관광수익 역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다. 특히 세계적인 건축물로 꼽히는 '알람브라 궁전' 이 있는 그라나다시의 경우, 매년 시 인구의 10배가 넘는 외국인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한다.

□ 관광대국 스페인 요인 분석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찬란한 문화유산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 17개 자치지역에서 각기 차별화된 꾸준한 관광진흥정책으로 문화재를 복원 및 보존해 현재 지방정부 예산의 20%를 관광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투우, 플라맹고, 축구는 물론 1년 내내 축제가 열리는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외국인 유입 전략에 성공하였다.

○ 문화, 축제, 호텔, 요리, 스포츠, 산티아고 순례길 등 다양한 테마의 관광상품으로 외국인 유입을 유도하였다..

□ 문화유산과 관광상품의 차별화된 글로벌 홍보전략

○ 세계관광의 중심지로 국가 브랜드를 마케팅 하고 있다. 1975년 UN 세계관광기구(WTO)의 첫 총회가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면서 마드리드에 사무국 설립되고 이후 세계관광의 중심으로 이미지가 격상되었다.

○ 이후 마드리드 등 주요 도시에 스페인의 각 자치구별 관광진흥청을 설치하고 세계 인형극페스티벌, 세계 창작음악 축제, 세계 음식 축제, 국제 학술제 등 풍성한 세계 대회 유치로 외국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였다.

○ 문화를 통한 다채로운 글로벌 홍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통한 '투우' 와 '플라맹고' 홍보, 워싱턴 어빙의 책 <알람브라>로 그라나다 예술성 홍보, 세르반테스의 풍자소설 <돈키호테>를 통한 라만차 홍보, 어거스틴 라라의 노래 <그라나다>를 통한 도시 브랜드 홍보, 타레가가 작곡한 기타 명곡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 수많은 예술작품을 통해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한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로 각인되고 있다.

□ 시 사 점

○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전라북도에는 문화유산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 이를 음악·미술·대중문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

○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K-POP 콘서트 등을 전라북도에서 개최하여 이를 인터넷 또는 SNS로 생중계함으로써 한류 허브로서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다양한 문화를 활용한 글로벌 홍보전략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Ⅴ 연수성과

○ 지방재정 운영사례 비교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모색

○ 도내 다중이용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되짚어 보고 전라북도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 매뉴얼 작성을 위한 대안 제시

○ 전라북도 소방안전·비상재난대비 구호체계 구축상황을 되짚어 보고 소방, 안전, 재난, 재해 등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관광 선진국의 실제 운용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도내 대표 관광지에 대한 소방방재 대책 및 안전시설 설치시 맞춤형 정책자료로 활용

○ 자국의 대표 관광지와 관광시설에 대한 각국의 소방방재 및 안전시설물 설치 노력을 직접 시찰함으로써 숭례문 화재와 같은 참사가 도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매뉴얼 제작

○ 자치행정·재정·소방·재난 분야의 선진현장을 시찰하고 관련 정보 연구를 통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효과적인 정책개발 유도

○ 행정자치위원들의 창의적 인식개선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정책 전문가로서의 의정역량 강화 기여

○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되고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맞춤형 시책 발굴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

Ⅵ 연수후기

1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

스페인에서 '약속과 신뢰' 를 배우다.



김연근 위원장
(알함브라 궁전에서)

해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연수에 다녀왔다. 그동안 의원 국외여비에 발목이 묶여 동남아를 전전했던 것을 탈피해 소위 선진지를 시찰하자며 1년간 연수비 마련 적금을 부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선택한 나라는 유럽의 부호, 스페인이었다.

수백년을 내다보고 지어진 건축물, 정갈하고 절제된 도시, 웅장한 역사 속의 유품들, 의전이나 형식보다는 좀 더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향한 정부의 약속. 스페인의 이런 모습에서 연수기간 내내 뇌리에 맴돌았던 유일한 단어는 '신뢰' 였다. 스페인은 느슨하고 여유로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은 오늘 못 지키면 내일 지켜도 될 것처럼 보였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만큼은 철저했다.

대한민국의 KTX와 스페인의 아베(AVE)는 프랑스산 떼제베(TGV)를 모태로 태어난 고속열차이다. AVE(Alta Velocidad Espanola)는 높은 속력의 스페인, 또 “새” (ave)를 의미하는데, 1992년 마드리드에서 세비야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처음 개통되었다. 도입 당시 스페인 국민들은 고속열차인 아베의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반신반의했고, 이에 스페인 정부는 “아베가 시간을 어길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하겠다.” 고 공언하였다. 그후 아베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시간엄수를 아베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운행했고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환불도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국민적 신뢰에 힘입어 아베는 2008년 바르셀로나까지 확장되고 지금은 스페인과 프랑스를 왕래하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 고속열차의 대명사가 되었다. 국민적 신뢰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KTX는 어떤가. 66분 만에 서울과 익산을 오갈 수 있다며 10년을 기다리게 한 정부가 하루 48편 중 단 1대만이 이 시간 안에 운행된다고 말하고 있다.

스페인 아베(AVE)는 국민적 약속과 신뢰가 우선이었지만, 대한민국의 KTX는 ‘홍보’ 가 우선이었고 약속과 신뢰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선(先, 善)인지 생각조차 없는 듯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 그리고 신뢰를 잃은 정부, 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저 그런 서비스일 뿐이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는 '신뢰' 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느낄 때쯤 또 하나의 풍경이 눈 안에 들어왔다. 공공시설 어딜 가도 흰 벽에 붉은 소화기가 장식처럼 보기 좋게 걸려 있었다. 공공장소 어디서든 소화기를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걸어둬, 국민들에게 화재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주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화기를 생활 밖의 물건이 아닌 것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사람과 친숙한 위치에 걸려져 있었다. 이렇듯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안전과 화재에 대해서도 우리와 차이가 분명했다.

우리의 소화기는 되도록 보이지 않는 바닥 모퉁이에 방치돼 있거나,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있지 않은가. 문으로 가려지거나 사무실 환기를 위해 열린 문을 고정하는 묵직한 받침대 따위로 여기는 먼지탄 소화기와 대조적이었다. 성능과 성분 면에서 같은 소화기이지만 공공장소의 효용면에서는 천지차이인 것이다.

역사적 문화유산이 많은 곳답게, 화재 예방시설에서도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엿보였다. 대로(大路)는 물론, 좁은 골목길 바닥 밑엔 하수구처럼 소화기 노즐을 설치해 손쉽게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혹시 "소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할 수단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질문에 그라나다 시(市) 소방서장은 "강제할 수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가면 거리를 운행하는 차들에서 자연스러운 '모세의 기적' 이 일어납니다. 한국과 같이 예의가 바른 나라에서는 우리보다 길을 더 잘 비켜주지 않을지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에 우리는 너털웃음을 웃고는 돌아섰다.

공공기관의 존립목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다. 공공기관은 ‘공공의 질서와 국민의 안녕’이라는 공익을 창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하는 커다란 보호막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이다.

이를테면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스페인이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의 대국으로 또 현재엔 관광대국으로 굳건히 있을 수 있는 점도 이렇듯 ‘신뢰’와 무관하지 않음이 자연스레 체득되었다.

국민을 행한 정부의 약속과 신뢰. 세월호 1주년을 맞은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바로 세워놓고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②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박미권 주무관

남유럽 경제위기 '타산지석' 의 교훈



박미권 주무관
(똘레도 구시가지에서)

우리나라 2011년말 청년실업률(15~29세)은 7.6%로 전체 실업률 3.4% 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체감실업률은 무려 11.3%에 청년실업자 3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 86만명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힘들어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 단념자, 취업학원 등에 다니는 취업준비자, 취업자 중 더 좋은 직장을 원하는 추가 취업희망자 등 사실상의 청년 실업자도 49만명이나 된다.

몇년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수천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스페인은 일반인들의 실업률도 23%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청년실업률은 50%에 달해 그 심각성은 이미 도를 넘은 상황이다.

스페인의 재정위기는 유럽전역의 경제위기와 함께 부동산 거품 붕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빚이 중요한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빚이 문제

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여타 남유럽국가와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의 실권을 쥐자 선거 때마다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북유럽 못지않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업자 상당수가 일은 하지 않고 '후한 복지' 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악화로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복지재원인 세금은 점점 줄어들어 지방정부 재정은 점점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부터 스페인은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지만 복지예산의 특성상 대부분 한번 세워지면 다시 없애기 힘들어 긴축재정을 펼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유럽 경제위기 여파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지출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언제 있을지 모를 통일을 대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복지사회를 구축해온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이미 고령화, 저출산, 청년실업 등 유럽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수준을 높여가면서도 재정건전성 및 대외경쟁력을 유지하는 묘안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좋은 시절에 재정건전화 숙제를 뒤로 미루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조속히 전라북도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전북도청 소방행정과 강병철 주무관



강병철 주무관
(필라르 대성당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투우, 플라맹고의 나라 스페인과 인도항로의 개척자로 불리는 '바스코 다가마'의 나라 포르투갈을 방문한다는 기대와 설렘을 안고, 이베리아 반도를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의 소방안전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소화기구나 소방시설이 있으면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파리 드골공항을 경유하여, 바르셀로나공항에 도착하였다. 연수단의 첫 방문 도시는 바르셀로나였다.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제2의 도시인만큼 혼잡한 교통상황을 예상했으나, 차도를 오가는 많은 오토바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였으며, 인도 쪽의 연석 높이를 낮춰 차도와 인도 사이의 공간을 오토바이가 수시로 주차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띄었다.

바르셀로나를 출발하여 마드리드, 꼬르도바, 그라나다, 세비야 등 스페인의 주요도시와 포르투갈의 리스본까지 각 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문화유적지를 방문하면서 살펴본 안전대책은 우리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안전에 대한 자세는 사뭇 달랐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부, 의회, 시민 모두 안전이 다른 부문보다 우선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는 화재에 관련된 조례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었으며, 관계자들은 제도에 대한 불평보다는 안전을 위해 각종 규제가 당연하다며 이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관계자 위주의 자체안전점검으로 이뤄지는 것이 관 위주인 우리나라와 달랐으며, 본받을 점이었다. 관계자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고, 점검하고, 투자하면 그만큼 화재발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여도 초기에 신속히 진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라나다 소방서와의 간담회 및 시설견학은 연수 중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소방서의 기본적인 운영현황과 세부적인 대응대책 등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도의 소방 현황과 비교해 보는 한편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소방서장 및 소방학교장의 말에 따르면 소방서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다고 한다. 화재발생은 2014년 총 출동건수(3,000여건) 중 약 3%(90여건)를 차지하였고, 스페인에 석조건물이 많다는 점과 겨울철에도 춥지 않아 전열기구의 사용이 적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지만, 관계자 위주의 자체안전점검도 큰 이유이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그라나다소방서에서는 화재, 구조, 구급 등 모든 초기대응을 소방조직에서 처리하는 우리와 달리, 화재와 구조 업무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구급분야는 타 조직에서 담당하여 구급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지 못해 아쉬웠다.

소방서 시설을 둘러보면서 휴게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등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확인하고, 소방공무원의 충분한 휴식이 도민에게 제공하는 소방안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스페인 소방관의 근무형태가 4~5일 주기라는 소방서 직원들의 말에 전면 3교대의 실시가 2년도 안된 우리 소방의 근무형태를 떠올리며,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다중이용시설, 문화유적지 등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점은 대부분의 옥내소화전이 우리와 달리 호스릴 옥내소화전으로 되어 있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과 소화기구 및 소방시설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가 형식적으로 부착하지 않고 실제 유사시에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알맞게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대책, 넓게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 제도의 정비 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었다. 안전분야에 있어서 법 집행의 엄정함과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관계자를 포함한 도민의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조금 더 향상된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막고, 질 높은 안전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전북도청 예산과 박혁 주무관



박혁 주무관
(누에보 다리에서)

‘태양의 나라,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나라, 호날두와 메시라는 세계적인 축구선수를 볼 수 있는 축구 잘하는 나라....’ 국외연수를 다녀오기 전에 떠올렸던 스페인에 대한 생각들이다. 연수를 가서 왜 이러한 수식어들이 스페인을 대표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여행내내 좋았던 날씨와 거기에 더해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가기 전보다 스페인을 더욱 괜찮은 도시로 만들었고,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에서 들린 FC바르셀로나와 레알마드리드 프로축구팀 경기장은 그동안 TV로만 봐왔던 현장에 내가 와있다는 사실에 나를 설레게 만들었다.

우리가 경기장을 방문하는 동안에도 저렴한 가격이 아님에도 내국인, 외국인 방문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축구용품 관련 기념품매장에도 하루 매출이 계산이 안될 정도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자국민이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스페인을 찾게 만든다는 사실이 너무도 부러웠다. 우리도의 프로스포츠팀인 전북현대와 전주KCC 팀과 경기장도 홍보 등 전략적인 도정지원과 우리도민

의 더 많은 관심으로 전북도를 대표하는, 더 나아가 아시아 및 세계를 대표하는 스포츠팀이자 관광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관광자원을 가져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우디의 경우도 가우디가 이곳에 태어난 것이 스페인과 바르셀로나에 축복이기도 했지만, 가우디를 이토록 유명하고, 모든 세기에 거쳐 살아갈 수 있도록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잘 활용한 것은 스페인 정부와 바르셀로나 시청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여행일정에 따라 봤었던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프라도 미술관 등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스페인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가우디의 건축물도, 어떤 것도 아닌 스페인 사람들의 여유와 배려, 따뜻함이었다.

일화로 저녁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슈퍼마켓에 갔었는데, 물건을 사러온 동네 주민에게 물품에 대해 물어보면 말이 전혀 안통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 펜과 종이를 찾아와 설명해주고, 나를 안내해서 데려다 주기까지 하는 사람들과 언제든 도로를 건널때면, 설사 무단횡단을 해도 절대 경적을 울리거나 먼저 지나가려 하지 않고 멈췄던 스페인 운전자들을 보면서 ‘역시 이것이 선진국이구나’ 라는 감명을 받았다.

또한 그라나다에서 방문한 스페인 소방서 서장님에게 소방차들이 출동할 때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소방차나 응급차가 지나가면 차들이 멈추고 먼저 지나가길 기다린다는 말에 역시 한번 더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본 스페인은 앞에서 말했던 수식어들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오히려 그보다 더 멋진 나라였고, 열정이라는 수식어에 가려 미처 생각지 못했던 배려와 따뜻함이 더욱 인상 깊었던 나라였다.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공직자로써 행동해왔는지 그동안의 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 업무와 밀접하지만 잘 모르던 곳이기도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와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행자위 직원분들과 서로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큰 기쁨이었다.

의회는 흔히 집행부의 감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지역이 더 잘 사는 지역으로, 우리 도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집행부와 공통의 목표인 만큼 서로 협력해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도 많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연수의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